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- 여호와

WELCOME
마음을 여는 대화

친교부장

살다 보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보다, 적당히 타협하고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. 세상의 불공평함이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, 문득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깨닫고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을 고백했던 적이 있나요? 혹은 요즘 내 입술에 불평이 더 많은지 감사가 더 많은지, 나의 솔직한 마음 상태를 나누어 봅시다.

WORSHIP
마음을 드리는 찬양

찬양부장

〈 금주의 찬양 :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〉

찬송가 : 다 찬양하여라 (새찬송가 21장)
큰 영광 중에 계신 주 (새찬송가 20장)

복음성가 악보는 뒷면에 있습니다.

WORD Ⅰ
말씀 나눔

시편 92편 1~15절 (구약 871면) 목 자

"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
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" (시 92:1-3)

WORD Ⅱ
은혜 나눔

전도부장

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

1. 시편 기자는 악인이 우후죽순처럼 번성하는(7절)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, 만물을 다스리시는 '지존하신 하나님'을 바라보며 안식일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. 내 삶의 문제나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. 눈앞의 상황을 뛰어넘어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염려나 원망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.

2. 말씀은 의인이 비록 현실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'여호와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'처럼 결국 푸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(12-13절).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의 뜰 안에 깊이 뿌리내린 굳건한 신앙고백을 갖기 위해, 이번 한 주간 나의 일상(말씀 묵상, 감사 일기, 기도 등)에서 새롭게 실천할 구체적인 영적 습관은 무엇인지 결단해 봅시다.

WORK
기도와 돌봄으로 섬김

기도부장

목장 내에 서로 살피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나누며

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,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 회복되게 하소서.
② 목장과 가정을 위한 기도: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눈 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.

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.

*소식나눔(주보참고) : 비전부장

'주기도문'으로 목장모임을 마칩니다.

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

(부제 : MARANATHA)

